

01 교회소식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요 14:1~2)

02 생명의 말씀_ 십계명 시리즈 6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거나 영혼을 실족시키는 경우도 영적인 살인에 해당된다.

03 기획특집

노아 방주에 담긴 비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우게 하시되 그 중 특정 동물들의 수는 더하게 하신 이유.

04 간증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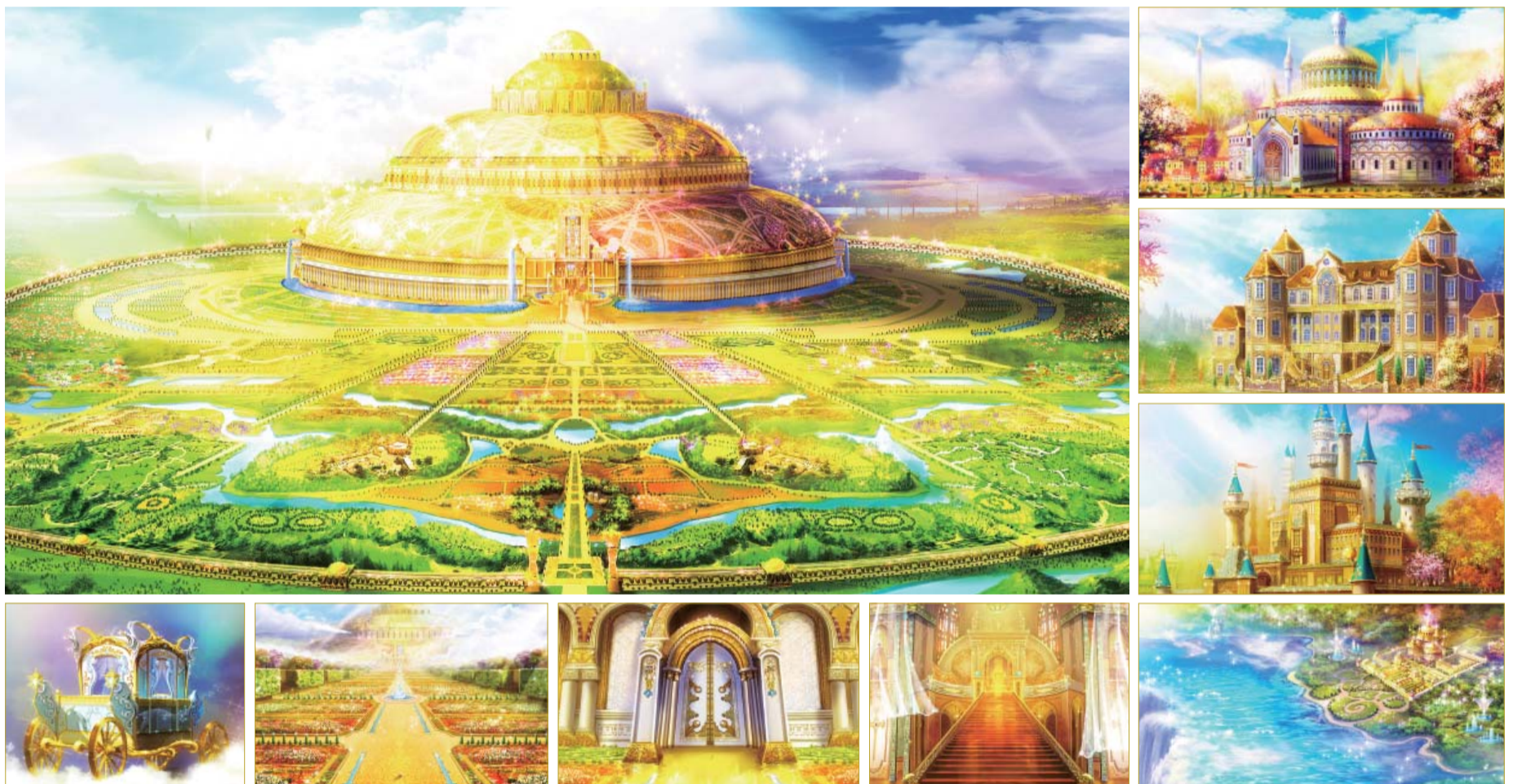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뒤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감소된 일과 쌍꺼풀이 생긴 마해미 자매 간증.

만민뉴스

제659호 2014년 11월 9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전 세계에 천국 소망을 전하는 우리 교회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느낄 수 있는 3D 영상 상영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황금마차를 타고 오색찬란한 보석과 예쁜 꽃들이 만발한 향기로운 정원을 지나 목자의 성 본체 입구를 통과하면 1층과 2층 사이에 마련된 특별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 드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공간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목자와 하나 돼 영혼 구원에 힘쓴 성도들을 위한 개인 별장들이 각자의 취향에 맞게 지어져 있으며, 이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 땅의 기술력으로는 황홀하고 감동적인 천국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지만, 이를 통해 전 세계 만민이 구원받아 천국을 침노하며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이르기를 소망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 사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2)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낙원의 아름다움을 맛본 사도 바울.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바울은 자신이 가진 부와 권세, 학식 등을 다 뒤로하고 오직 복음 전파에 힘썼다. 그 길이 설령 주리고 목마르며 고되더라도 마음에는 항상 영혼을 향한 사랑과 감동함이 넘쳤다.

1984년 5월, 하나님께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금식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천국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기 시작하셨다. 이후로도 전 세계 만민을 깨우는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아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파해 온 우리 교회

에 하나님께서는 해가 갈수록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알려 주고 계시다.

2014년 10월에는 목자와 하나 돼 하나님 나라를 창대히 이뤄온 우리 교회의 창립 32주년을 맞아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느낄 수 있는 3D 영상이 상영돼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었다.

육안(肉眼)으로 안 보이는 천국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된 데 대해, 온두라스 JBN TV 사장 에스테반 한달 목사는 “하나님의 계시가 잘 담겨 있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성결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강남대학교 미대교수이자 한국문화예술연구소 소장 김미경 교수는 “어떻게 저렇게 천국을 시각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보여줄 수 없다는 믿음이 강하게 들면서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갈 곳이거나 하고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WCDN(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 2015 말레이시아 콘퍼런스 조직위원 저스틴 클라란스 목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이를 통해 천국은 어떤 곳이며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 또한 새 예루살렘에 꼭 가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영상 곳곳에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녀들이 영원히 살아가 천국의 처소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성도들은 지난날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기억해서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며,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새 예루살렘 소망이 더해졌다.

이재록 목사의 저서 『천국』(하)에는 새 예루살렘 성 열두 기초석 각각에 담긴 의미인 믿음, 공음, 희생, 정의, 충성, 열정, 자비, 오래 참음, 양선, 절제, 청결, 온유를 설명하며, 이 열두 가지 보석 빛이 적절히 배합된 완전한 사랑을 이룬 사람은 당당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감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천국의 아름다움을 현재 14개 언어로 발간된 『천국』(상)(하) 책자와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GCN 방송, 그리고 교회 창립 행사 등의 공연을 통해 전 세계에 전파하며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번 3D 영상을 통해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충만해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심정으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마지막 때 섭리를 힘차게 이뤄갈 것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살인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13)

“살인하지 말지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지요. 단지 마음으로 미워할 뿐인데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악이 근본적으로 미움이라는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점점 발전하면 행함으로도 상대에게 악을 행하고 결국 살인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로 살인죄를 범한 가인도 그 죄의 뿌리는 미움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셔서 아벨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해 결국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욕하고 다투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며, 판단하고 정죄하여 상대의 허물을 전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거저으로 속여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원수를 맺음으로 상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이처럼 미움으로 인해 악을 행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영적으로 살인이라는 말씀입니다(마 5:21-22).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르지 않았기에 스스로 마음에 할례해 성결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셨고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 버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지요. 그러니 행함으로 살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움이라는 죄의 뿌리까지 마음에서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죄악들을 벗어 버리고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3. 영혼을 실족시키는 경우

실족(失足)이란 ‘발을 잘못 디딘다’는 뜻으로, 신앙 안에서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는 것은 상대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해 그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중요한 일이 집안에 있는데 예배에 빠져도 될까요?” 하는 질문을 받고 머리된 일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주일을 어겨도 어쩔 수 없지요.” 하고 대답했다면 이는 상대를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니 영적인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혹은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교회 재정을 잠깐 쓰고 채워 넣어도 될까요?” 하는 질문에 “다시 채워 넣기만 하면 상관없지요.”라고 말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 뜻을 정반대로 가르치므로 상대를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진리를 가르쳐 주므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영적인 살인에 해당됩니다. 때로는 잘못된 신앙상담을 해 주어서 성도의 형편을 어렵게 하고 연단받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바른 상담을 해 줄 자신이 없다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서 정확한 주관을 받든지, 혹은 답을 알 만한 분에게 질문해서라도 정확한 답을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악한 말로 남의 허물을 판단 정죄하고 사단의 회를 만들어 수군수군하거나 이간질하는 것 등도 영적인 살인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형제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특히 주의 종이나 교회에 대해 비방하는 말을 전해 많은 사람을 실족시켰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계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악으로 인해 스스로 실족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로만 행하셨지만 악한 유대인들이나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은 자신의 악으로 실족했지요. 혹여 상대의 허물을 보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 한다면 이는 상대가 실족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비진리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를 믿고 보증을 서 주었는데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이는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에는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교회에서도 믿음의 형제간에는 금전 거래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진리로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치 않으므로 피해를 입었으니 오히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보고 판단 정죄해 실족했다면 그는 자신의 악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녕 선한 마음이요, 참 믿음이 있다면 혹여 상대의 부족한 모습을 보아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줄 뿐이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에 걸림이 되므로 실족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일조를 해야 축복받는다든 말문을 증거하면 교회에서 물질을 강조한다며 불편해하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권능을 말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믿지 못하므로 스스로 마음에 걸림이 돼 실족하기도 하지요. 자기 안에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다면 증거되는 말씀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을 텐데(마 11:6), 자신이 어둠 가운데 거하므로 빛이신 하나님 말씀에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요 11:10).

이렇게 사람이 실족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이지만 형제를 실족시키는 사람 편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리 말씀도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갓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술 담배를 끊으세요.” 한다면 “주일에는 절대로 가게를 열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친다면 이는 마치 젓맥이 아가에게 고기를 먹인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순종한다고 해도 마음에 짐이 되거나 교회에 나오는 것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녕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말 한 마디를 해도 삼가 절제하므로 상대를 실족시키지 않고 오히려 은혜와 덕을 끼칩니다. 상대에게 짐이 되고 찢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를 사랑하면 어떤 티도 허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혹여 큰 허물을 발견한다 해도 오히려 상대를 긍휼히 여기며 변화될 것을 바라봄으로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미움을 철저히 버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영적 살인’도 금하시는 말씀이지요.

만일 이런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계명은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이 매우 중한 범죄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자살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라고 해서 자신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자살은 살인죄에 해당하며, 낙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라 할지라도 부모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살인 자체도 무서운 죄인데, 더구나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2. 형제를 미워하는 경우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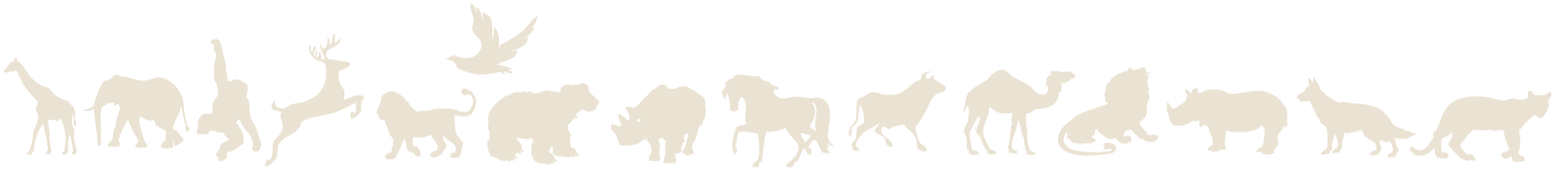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노아 방주에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태우고 그 중 특정 동물들의 수는 더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종족 보존을 위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우라고
하셨다(창 6:19).
그런데 창세기 7장 2~3절을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정 동물을 지명해
방주에 더 태우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

흠으로 창조된 모든 짐승은 처음 창조될 때에 사용된 토질에 따라 그 근본 속성이 달랐다. 어떤 짐승은 성질이 간사하고, 어떤 짐승은 포악하며, 어떤 짐승은 탐욕스러운 성질을 내재하고 있었다. 반면에 어떤 짐승은 순종적인 성질을, 어떤 짐승은 순한 성질을, 어떤 짐승은 우직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면서 짐승들도 내재된 근본 속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근본 속성에 따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시되 일부만 ‘정결하다’ 또는 ‘부정하다’고 해 주셨다. 대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는 짐승들이 근본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이 대홍수 심판으로부터 약 1천 년 후에 기록된 레위기의 기준과는 다르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수를 더하신 이유

1. 종족을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 먼저 정결한 짐승 “암수 일곱씩”이란, ‘암수 일곱 쌍’ 곧 ‘열네 마리’란 의미와 ‘암수 세 쌍과 수컷 한 마리’ 곧 ‘일곱 마리를 뜻한다. 정결한 짐승은 소, 양, 염소 등 매우 유순한 동물들로서 종족을 보존하려면 맹수들보다 그 수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암수 일곱 쌍’을 태우셨다. 또한 ‘또 다른 목적’으로 암수 일곱 마리, 곧 ‘암수 세 쌍과 수컷 한 마리’를 방주에 더 태우셨다.
예를 들면, 정결한 짐승에 속하는 ‘양’은 종족 보존을 위해 일곱 쌍을 태웠고, ‘또 다른 용도’로 세 쌍과 수컷

한 마리를 더 태운 것이다. 그래서 방주에 태운 양의 수는 총 스물한 마리로 숫양은 열한 마리, 암양은 열 마리가 된다.

다음으로, 부정한 것 “암수 둘씩”이란 ‘암수 두 쌍’ 곧 네 마리를 뜻한다. 한 예로 부정한 짐승에 속하는 돼지는 기본적으로 암수 한 쌍을 태우고 또 다른 목적으로 암수 한 쌍을 더 태워 암수 두 쌍, 총 네 마리를 방주에 태운 것이다. 이처럼 노아 방주에는 모든 생물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것’, 그리고 ‘나머지’로 구분됐다.

2. 제물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양식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 정결한 짐승을 더 태우신 ‘또 다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에 제물로 쓰기 위함이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대홍수 심판 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온다. 즉 ‘정결한 짐승’이란 ‘제물’이 될 수 있는 짐승임을 알 수 있다.
노아는 대홍수 이후 소 한 마리와 함께 양, 염소, 비둘기 모두 한 마리씩 번제로 드렸다. 이때 번제로 드린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수컷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은 수컷을 한 마리 더 태우게 하신 것이다. 만일 정결한 짐승을 암수 한 쌍씩만 방주에 태웠다면, 번

제를 드리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그 순간 소, 양, 염소, 비둘기는 멸종됐을 것이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였다. 대홍수 심판 이후 이 땅에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번성하므로 하나님께 제사드릴 일도 많아졌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수효만큼 정결한 짐승들을 더 태우게 하신 것이다.
둘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양식이 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 이후, 사람들에게 육식(肉食)을 허락하셨다(창 9:3). 홍수 심판 전까지는 채식만 했지만 이후 고기도 먹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허락된 동물이 바로 정결한 짐승이다.

3.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양식으로 주기 위함이었다

- 부정한 짐승을 더 태우신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일까? 장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양식으로 주기 위함이었다. 대홍수 심판 이후 세월이 흐름에 따라 노아의 자손이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생겨났다. 그들은 임의대로 정결한 짐승이 아닌 다른 짐승들까지 잡아 양식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떤 짐승을 양식으로 삼을 줄을 미리 아셨다. 이에 노아 방주에 암수 한 쌍씩을 더

태우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신 동물들은 장차 이방인들에게 양식이 될 짐승들이었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5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심판 때에도 믿음이 있는 백성은 물론, 장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양식을 미리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다.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November
2014.11.9~11.15

이재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십자가의 도 3-7
- 신뢰
- 일곱교회 1-5
- 목자의 성
- 믿음의 분량 6-10
- 축복 3
- 창세기 강해 74-78
- 요한일서 강해 33-37
- 요한계시록 강해 39

GCN TV설교

- 악을 미워하는 것 6 (이수진 목사)
- 영의 세계 22 / 기도 5 (이희선 목사)
-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신동초 목사)
- 여호와가 누구관대 (정구영 목사)
- 게으름 (김수정 목사)
- 네 생물이 (천우진 전도사)
- 공의 (조소영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 19
- 옛날 옛적에 10
- 모두 드려요 18
- 흥겨운 소리 2
- 만민 지킴이 8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6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39
- 찬양 드려요 14
- 향기 12
- English 13
- 플로리스트 1
- 뷰티풀 라이프 11

해외성회 및 교육

- 회상 19
- 인도 연합대성회 4
- 2014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 3-4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해외에서 온 편지

지난 9월 16일,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서신이 왔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한 콩고민주공화국 에쿠아퇴르 주의 세바스찬 임페토 광고 주지사로부터 온 서신이었다.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에쿠아퇴르 주지사인 세바스찬 임페토 광고 집사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 삶을 변화시킨 귀한 생명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6년 전부터 저희 가족은 콩고 킨샤사만민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저희는 주일을 지키고 금요철야예배에 참석하며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에 등록했을 때 환경자연보존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이었는데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 에쿠아퇴르 주 음반다까 시의 시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호수 담임 목사님은 제가 축복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셨습니다. 얼마 후, 담당 주지사가 질병으로 인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치료차 떠나게 됐고 몇 달간 자리를 비우게 되자, 콩고민주공화국 조셉 카빌라 대통령은 저를 에쿠아퇴르 주지사로 임명했습니다.

현재 에쿠아퇴르 주의 보엔데 지역 제라 마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카빌라 대통령은 세계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곳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을 퇴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당회장님의 기도에 감사드리며,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 9. 16. 에쿠아퇴르 주지사 세바스찬 임페토 광고 드림

9월 21일, 산상기도 중이던 이재록 목사는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그 뒤 현지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9월 26일, 세바스찬 임페토 광고 주지사는 이를 위해 기도해 준 이재록 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사망자 수가 급감했다는 내용은 연합뉴스 10월 2일자에도 보도된 바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급성 열성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사망률이 약 50~90%에 이르는 중증 감염병이다.

“수술하지 않고도 쌍꺼풀이 생긴 놀라운 사실, 들어보실래요?”



마해미 자매 (2청년선교회, 23세)

저는 대학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했고,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천상의 무용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이크업을 자주 하게 되고, 쌍꺼풀이 없는 눈을 크고 또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쌍꺼풀 테이프를 사용해야만 했지요. 더욱이 눈꺼풀이 두툼하다 보니 많은 대여섯 번을 수정해 붙여야 했습니다.

장시간 붙이고 있으면 쉽게 눈에 피로가 오고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힘들었지요. 이로 인해 '쌍꺼풀이 있으면 테이프도 붙이지 않고 눈도 아프지 않을 텐데... 참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2014년 5월 11일 주일 아침, 저는 마음의 변화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악수하고자 교회에 오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당회장님이 오셨고, 저는 당회장님의 따뜻한 사랑의 미소를 바라보며 행복한 마음으로 악수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쌍꺼풀이 생길 것 같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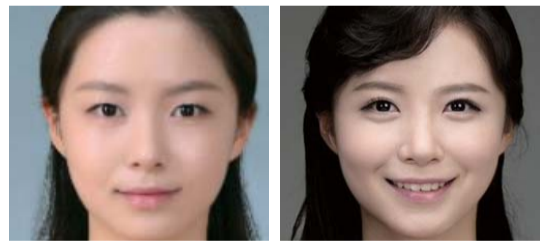
저는 즉시 당회장님과 악수한 손을 눈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권능으로 쌍꺼풀을 만들어 주세요!" 그 순간 눈에 선이 그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확인해 보니 쌍꺼풀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접 기도받은 것도 아니었고, 단지 당회장님 권능의 역사를 믿었을 뿐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쌍꺼풀이 있으면 편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인위적으로 쌍꺼풀을 만들고 싶거나 쌍꺼풀이 없다고 불평한 적은 없었습니다. 쌍꺼풀이 생겨서 편해지고 예뻐지는 것보다 마음의 활레가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마음을 먼저 이루자. 내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쌍꺼풀도 만들어 주실 거야.'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공연을 위해 쌍꺼풀 테이프를 붙여야 하는 등 번거로운 상황에도 감사했더니 결국 그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의 마음을 이룬 후 쌍꺼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공연 메이크업을 할 때에도 수월하고 시간도 단축되며 눈에 피로가 쌓이지 않아서 매우 좋습니다. 무엇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이처럼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 제겐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항상 눈에 본 듯 만진 듯 아버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사랑,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당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쌍꺼풀이 생기기 전의 모습(왼쪽)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배우시는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쌍꺼풀이 생긴 모습(오른쪽).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하로 26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암로 234번길 25-4
천안만민성결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공주만민교회 충청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서산만민교회 충청남 서산시 잠동1길 24
아산만민교회 충청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서량만민교회 충청남 계룡시 금암로 135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신로326번길 32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 일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3길 11-2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팽동로2길 6, (3동2층)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안로 22, 은성빌딩 5층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